

〈여우누이〉 설화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와 그 의미*

김준희**

〈차례〉

1. 들어가며
2. 여우누이의 출생과 성장 : ‘부조화’의 그로테스크
3. 여우누이의 퇴치 : ‘미해결’의 그로테스크
4. 나오며

〈국문초록〉

이 논문은 구비 전승되는 〈여우누이〉 설화를 대상으로, 이 설화의 ‘불편함’, ‘미확정성’ 등을 ‘그로테스크’ 개념을 통해 구명하려고 하였다. 특정 장면의 시각적 그로테스크함을 넘어 여우누이라는 존재, 그리고 설화 자체에서 발생하는 그로테스크를 살피고자 하였다. 먼저 부모의 기녀치성은 이 설화가 배경으로 하는 사회 그리고 전승자들의 ‘상식’과 이미 어긋난다는 점에서 함께 있으면 곤란한 것들을 공존하도록 만든다. 부모의 ‘딸 낳게 해달라’라는 기원은 생명에 대한 기원과 죽음을 불러오는 저주를 하나의 언술 안에 담기도록 함으로써 그로테스크를 강화한다. 또한 여우누이라는 캐릭터는 ‘구성’상으로도 이질적인 것들이 한데 섞여 있으며 그것들이 융합되기는커녕 부조화의 상태로 인간 세계와 계속 충돌하지만 하는 그로테스크적 존재이다. 대표적으로 여우누이가 가축을 포식하는 것은 낮은 대상이 혼란을 초래하는 그로테스크를 구현한다. 부모가 여러 아들들의 목격담을 외면하는 것 또한 익숙한

* 이 논문은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년 추계 학술대회(2021.11.13.)에서 발표한 원고를 대폭 수정한 것이다. 학회 발표 당시 제기한 〈여우누이〉 설화의 모호함, 미확정성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유지하되 연구의 시각을 ‘그로테스크’의 미학으로 변경하였다.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맡아 주신 전주희 선생님, 조연을 보내 주신 여러 청중 선생님, 논문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린다. 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 심사 과정에서 얻은 조언 덕분에 논문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대상으로부터의 낯설을 드러내며, 여우누이가 잔인하게 가축을 살해하고 그 내장을 빼 먹는 행위 역시 외양과 행위의 충돌 및 육체적 무절제의 그로테스크를 표출한다. 이와 같은 여우누이의 그로테스크는 이 캐릭터의 '무지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그로테스크한 흥미와 쾌감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거나 고차원적 미의식을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경계적이다. 아울러 여우누이가 오빠를 뒤쫓다 퇴치되는 장면에서는 오빠를 음식으로 먹겠다고 하면서 먹을 수 없는 대상을 먹으려는 모순적 발화가 반복됨에 따라 육체와 관련된 부조화의 그로테스크가 강화된다. 여우누이가 퇴치되더라도 예전의 가족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은 그로테스크가 지니는 '미해결'을 잘 보여준다.

□ 여우누이, 그로테스크, 충돌, 낯설, 부조화, 미해결

1. 들어가며

본고는 구비 전승되는 〈여우누이〉 설화(이하 〈여우누이〉)를 대상으로, 이 설화에 나타나는 '불편함', '미확정성' 등을 '그로테스크' 개념을 통해 구명하려는 연구이다.

〈여우누이〉의 주인공 '여우누이'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좀처럼 그 전모가 '잡히지 않는' '괴물'이다. 이 설화는 혼란스럽고 여우누이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의 선택과 행동에도 모순이 빈번히 나타난다. 아들이 여럿 있는 집에서 부모는 딸을 원하고, 딸이 태어나자 집안의 중요한 가축들이 죽어간다. 아들들은 누이동생의 잔혹한 행위를 목격하고 고발하지만 부모는 아들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 아들들, 즉 오빠 중 한 명이 괴물 누이동생을 처치하는 데 성공하지만 이는 누이를 먼저 나서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추격을 따돌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도리어 이 과정에서 오빠는 여우누이에게 거의 따라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기까지 한다.

이 이야기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는, 이 딸이 인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우로 변신할 수 있으면서 인간인 부모와 오빠들과 혈연을 온전히 공유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인간과 여우의 모습을 오가는 여성 캐릭터로 ‘구미호’ 류의 캐릭터도 존재하나, 이들은 인간 남성을 성()적으로 유혹하기도 하되 가족의 경계, 혈연의 경계를 넘나들지는 않는다. 여우누이라는 캐릭터와 이 설화가 발생시키는 혼란, 불편함, 애매모호함, ‘어중간함’을 괴물의 부정적인 속성으로만 간주할 수도 있지만, 혼란 자체의 의미에 따라 연구의 확장 가능성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여우누이〉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여우누이의 ‘괴물적 특성’이 어떻게 형상화되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모였다고 할 수 있다. 각편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여우누이의 행위가 서술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에 대한 이야기판의 흥미, 반응 등을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 설화에 대해서는 이미 선학들에 의해 넓고 깊은 연구가 축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우누이〉 및 ‘구미호’ 류 설화와 현대 TV 드라마를 연결시킨 논의까지 연구사의 폭이 넓다.¹⁾ 최근에는 이

1) 먼저 이 설화가 ‘변신설화’로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강진욱이 자세히 살폈다. 강진욱, 「변신설화에 나타난 세계인식양상(1)-여우의 둔갑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논총』, 다국 이수봉 선생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88, 611~630쪽; 강진욱, 「변신설화에서의 ‘정체확인’과 그 의미」, 『진단학보』 73, 진단학회, 1992, 165~185쪽; 강진욱, 「여우누이설화에 나타난 남매대결의 의미」, 『구조와 분석』 2, 창, 1993, 227~260쪽; 강진욱, 「변신설화에 나타난 ‘여우’의 형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9, 한국고전문학회, 1994, 5~45쪽.

아울러 ‘괴물’, ‘요괴’ 설화로서의 연구는 박대복·유형동, 「〈여우누이〉에 나타난 요괴의 성격과 퇴치의 양상」, 『어문학』 106, 한국어문학회, 2009, 149~177쪽; 이승민, 「한국 구비설화 속 괴물의 양태와 콘텐츠화 전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139쪽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또한 이명현, 「구미호 이야기의 확장과 억압된 타자의 귀환—〈구미호 여우누이뎐〉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55, 국제어문학회, 2012, 11~41쪽; 박윤주, 「구미호()로 상징된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의 경계와 거부」, 『겨레어문학』 61, 겨레어문학회, 2018, 5~49쪽 등의 연구에서는 〈여우누이〉를 포함한 ‘구미호’ 설화들이 현대 매체에서 활용되는 양상이 논의되었다. 이

설화를 ‘남매관계 설화’로서 접근하여 여우누이가 지나는 복잡성에 주목한 연구가 제출되었다. <여우누이>에서는 반인반수 여우누이와 인간 오빠들의 불편한 공존이 극대화되어, 남매 갈등이 반인반수(여우누이) 대 오빠들(인간)의 대립, 공간의 분산, 가족의 해체 등으로 형상화된다.²⁾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남매관계’ 속에서 여우누이가 갖는 특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한 시도인 한편으로, <여우누이> 및 여우누이 캐릭터가 이야기판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전된 검토가 필요하다. 여우누이를 파악함에 있어서 남매관계 속 문제적 존재라는 점이 핵심적이긴 하나 이러한 캐릭터에게서 발생하는 효과에도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우누이가 선사하는 공포 및 여우누이 퇴치에서 비롯되는 효과가 ‘공포의 미’ 등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야기판에서 화자와 청중은 여우누이의 괴기스러운 언행을 흥내내며 공포를 체험하나 그것은 결국 허구이므로 안도감을 얻게 되며, 이 ‘긴장과 해방’이 공포의 ‘급습과 해소’를 통해 실현되는 ‘공포의 미’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포의 미는 여우누이의 파괴 및 그에 대한 징치에서 비롯되는 ‘쾌감’과 공존하기도 한다.³⁾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오빠에 대한 위협, 그에 따른 공포 및 이야기판에서 향유하는 쾌감을 각각 고찰했다는 의의가 있는 한편, 각 요소에 대한 단편적인 논의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다.

상의 연구사는 김준희, 「남매관계 설화의 형상화 양상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9쪽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2) 이상 여우누이 캐릭터의 복잡성, 남매 갈등의 형상화 등에 대한 사항은 김준희(2021), 위의 논문 참조.

3) 이상 <여우누이> 속 ‘공포의 미’와 쾌감 등에 대한 내용은 김준희, 같은 논문, 101~102쪽 참조. 여기서 ‘공포의 미’를 제안한 것은 임재해의 논의(임재해, 「설화에 의한 미적 범주의 확장」, 『민족설화의 논리와 의식』, 지식산업사, 1992; 임재해, 「설화의 상상력과 민족적 창조력」, 『한민족어문학』 33, 한민족어문학, 1998, 26~30쪽 등)를 참조한 것이다.

이에 본고는 ‘공포의 미’ 등을 아우르면서 설화의 형상화 양상도 포괄하는 미학을 고민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고가 주목한 것은 바로 ‘그로테스크(Grotesque)’의 개념이다. ‘그로테스크’는 ‘기괴’로도 옮겨 쓰이는 용어이나, 본고에서 살펴볼 ‘그로테스크’의 양상을 ‘기()’와 ‘괴()’로 설명하기에는 꼭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그로테스크’를 그대로 쓰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세기의 〈변강쇠가〉, 〈장끼전〉, 〈노처녀가(2)〉 속 병과 재해 등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다루며 ‘그로테스크’를 활용한 정환국의 연구가 참조된다. 해당 논문에서 정환국 또한 ‘괴기미’, ‘기괴성’으로는 ‘그로테스크’가 지닌 함의를 충분히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⁴⁾ 서유석 역시 실전 판소리의 그로테스크적 성향을 논의하면서 그로테스크라는 미감의 의미와 ‘기괴’, ‘괴기’, ‘엽기’ 등의 번역어가 동일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그로테스크를 “양립할 수 없는 정서의 충돌에서 드러나는 미적 특질”로 파악하고자 하였다.⁵⁾ ‘괴기’, ‘기괴’에서 쉽게 연상되는 정서가 ‘공포’이며 이것이 〈여우누이〉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후술하겠으나 본고에서 〈여우누이〉의 그로테스크와 관련하여 주목하는 대목은 공포를 발생시키는 괴기스러운 묘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그로테스크가 〈여우누이〉 및 여우누이라는 캐릭터의 구성 자체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로테스크’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정의하기보다 ‘불쾌하고·이상하고·더럽고·추하고·악마같고·괴상한...’ 예술에 대한 논의가 ‘그로테스크 미학’의 외연을 넓히며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로마 시대부터 “뿌리와 덩굴로부터 받은 꽃이고 받은 사람인 무엇” 같은 작품이 “어떻게 가능한단

4) 정환국, 「19세기 문학의 ‘불편함’에 대하여-그로테스크한 경향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연구』 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256쪽.

5) 서유석, 「실전 판소리의 그로테스크(Grotesque)적 성향과 그 미학」,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294쪽.

말인가”라는 의문을 발생시키면서도 계속 존재해 왔으며⁶⁾, “동물과 인간이 결합된 괴수”는 16세기에 이미 ‘그로테스크의 핵심 상징’이었다.⁷⁾ 그로테스크 미학의 대표적 연구자 볼프강 카이저는 ‘초시간적 개념’으로서의 그로테스크를 하나로 제안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그로테스크의 모티프에는 ‘괴형상’, ‘위협적 생명력’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⁸⁾ 한편 미하일 바흐친은 그로테스크를 “몸에서 기어 나오고, 밀려 나오고, 솟아 나오는 모든 것, 몸의 경계들을 넘어서려 애쓰는 모든 것들”과 관련시켰으며⁹⁾ 그로테스크적 신체는 “결코 완성되거나 종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생성한다고 주장함으로써¹⁰⁾ 그로테스크의 핵심에 ‘생성’을 놓았다. 따라서 바흐친은 과장된 육체 묘사 등의 그로테스크적 예술이 공포와 혐오, 웃음을 동시에 유발하고 기존 질서나 지배 이념을 격하시킴으로써 민중적 예술 문화의 ‘생명력’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¹¹⁾ 톱슨은 여러 학자의 그로테스크 논의를 검토하면서 그로테스크의 역사, 관련 용어와 양식, 기능과 목적 등을 정리하고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는데, 그 역시 그로테스크의 주요 특징으로 부조화, ‘희극적인 것과 끔찍스러운 것’, 지나침과 과장, 비정상성 등을 거론했다.¹²⁾ 이 과정에서 그로테스크에 대한 ‘제2의 정의’로

6) 볼프강 카이저, 이지혜 역,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아모르문디, 2011, 31쪽.

7) 카이저(2011), 위의 책, 39쪽. 카이저 등의 연구자가 전개한 그로테스크 논의의 세부 내용은 이후 〈여우누이〉 논의를 전개하며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다.

8) 카이저(2011), 위의 책, 282~290쪽.

9) 미하일 바흐친, 이덕형·최진영 공역, 『프랑스어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2001, 492쪽.

10) 바흐친(2001), 위의 책, 493쪽; 최진석, 『민중과 그로테스크의 문화정치학 : 미하일 바흐친과 생성의 사유』, 그린비, 2017, 338쪽.

11) 바흐친(2001), 위의 책; 서유석, 「「변강쇠가」에 나타난 기괴적 이미지와 그 사회적 함의」, 『판소리연구』 16, 판소리학회, 2003, 34~35쪽.

12) Philip Thomson(필립 톱슨), 『그로테스크』, 김영무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양면성이 공존하는 비정상”을 제안하기도 하였다.¹³⁾ 이외에도 다양한 논의를 살필 수 있겠지만, 그로테스크가 ‘양면성의 공존’, ‘부조화’, ‘비정상성으로 여겨지는 것’에서 발생하는 미학임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 고전문학 분야에서도 그로테스크 개념을 활용한 연구가 다수 제출되었다. 앞서 소개한 정환국의 연구 외에, 구비문학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반쪽이(외쪽이)〉 설화의 주인공 형상이 갖는 ‘의외성’과 그로테스크를 연결한 김나영의 연구¹⁴⁾, 〈바리공주〉에 나타난 ‘불편함’을 그로테스크로 해명하고¹⁵⁾ 〈바리공주〉 속 ‘숭고미’와 ‘그로테스크’의 공존을 논한¹⁶⁾ 심우장의 연구, 〈반쪽이〉 설화의 유희와 공포의 그로테스크, 〈바보사위〉 설화 속 ‘바보사위’의 민중적 그로테스크 미학, ‘방노담’의 그로테스크 등을 고찰한 김용선의 연구¹⁷⁾, 그리고 판소리에서 그로테스크가 형상화되는 양상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고찰한 서유석의 연구¹⁸⁾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특히 후술하겠지만 ‘실전 판소리의 그로테스크’가 새로운 현실에 대한 모색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서유석의 주장¹⁹⁾은 여우누이의 결말을 다시 독해하는

13) 톱슨(1986), 위의 책, 37쪽.

14) 김나영, 「비틀어진 인물 형상을 통한 인식의 전환과 변신의 의미 확장 가능성-〈외쪽이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15) 심우장, 「구비문학의 현재적 의의 찾기-〈슈택〉과 〈바리공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59, 어문연구학회, 2009.

16) 심우장, 「〈바리공주〉에 나타난 숭고의 미학」, 『인문논총』 67,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17) 김용선, 「〈반쪽이〉 설화 속 ‘신랑 승인’의 양상 재고」, 『동아시아고대학』 56, 동아시아고대학회, 2019; 김용선, 「구전설화 속 ‘방노담()’의 양상과 의미 : 분뇨서사에 투영된 소피()행위의 아브제시옹과 그로테스크」, 『한국문학연구』 6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1; 김용선, 「〈바보사위〉 설화 속 ‘지적장애’의 징후-사위의 암기강박과 처가의 이해와 수용」, 『한국문학과 예술』 38,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1.

18) 서유석, 「『〈변강쇠가〉에 나타난 의 과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서유석(2011), 앞의 논문.

19) 서유석(2011), 앞의 논문.

데에도 큰 시사점을 주었다. 한편 그로테스크를 활용하여 〈여우누이〉에 접근한 연구²⁰⁾도 제출되었는데, 여우누이의 가족 살해, 포식 장면을 위주로 그로테스크가 언급되었다. 그로테스크를 통한 〈여우누이〉 독해를 연장하는 차원에서, 본고에서는 〈여우누이〉 전반과 캐릭터의 본질을 대상으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상의 예비적 고찰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여우누이〉의 ‘서사 전개 순서’에 따라 그로테스크의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그로테스크라는 도구를 통해 이 설화의 ‘이상함’을 해명함으로써 향유의 차원까지 그로테스크의 미학으로 고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로테스크의 대표적 특징으로 거론된 ‘양면성’, ‘비정상성’, ‘부조화’ 등은 〈여우누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바, 이제 그로테스크라는 렌즈로 〈여우누이〉를 자세히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²¹⁾

20) 정윤명, 「한국 전래동화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특성 분석」,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59~63쪽.

21) 설화의 각편을 거론할 때 대상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기초 및 증보)에 수록된 〈여우누이〉로 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 전 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및 『증보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gubi.aks.ac.kr/web/Default.asp>」.) 아울러 설화의 ‘담화’ 층위를 포함하여 주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여우누이〉는 화자에 따라 각편의 규모도 대폭 상이하여, 연행에 적극적인 화자일수록 여우누이의 행동, 그로 인한 사건 등을 더욱 극적으로 묘사한다. 서술 이론의 소위 ‘스토리-담화’ 체제를 빌린다면 ‘스토리에’ 설치된 여우누이의 ‘이상한’ 행동들이 ‘담화’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여우누이〉의 그로테스크를 ‘스토리’ 층위뿐만 아니라 이야기관의 차원에서 구명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본고는 ‘담화’ 층위에 나타나는 그로테스크의 효과에 대해서도 고민하고자 한다. ‘스토리’와 ‘담화’에 대해서는 S. 채트먼,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H. 포터 애벗, 우찬제 외 공역, 『서사학 강의: 이야기의 모든 것』, 문학과지성사, 2014, 41~54쪽 참조.

2. 여우누이의 출생과 성장 : ‘부조화’의 그로테스크

1) 여우누이의 출생

여우누이의 출생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부모의 ‘기녀치성’, 즉 ‘딸 낳기 바람’이라는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기녀치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가부장제 사회 이전 딸 출생을 긍정하던 흔적’²²⁾, ‘징벌에 대한 예고’²³⁾ 등의 해석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부모의 기녀치성은 이 설화가 배경으로 하는 사회 그리고 화자 및 청중의 ‘상식’과 이미 어긋나는 소원이라는 점에서, 함께 있으면 곤란한 것들을 공존하도록 만든다. 결과적으로 설화 속 인물의 언행이 주변 상황, 기존의 가치관과 어긋나는 그로테스크가 나타난다.²⁴⁾ 설화 내에서는 부모의 간절함만이 부각될 수 있으나, 설화를 향유하는 주체들은 이를 공감할 만한 소원이 아니라 그로테스크한 소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우누이〉의 화자들은 이미 여우누이가 ‘괴물’임을 아는 상태에서 이 설화를 구연한다. 이에 따라 부모의 ‘딸 낳게 해달라’는 기원은 결국 집안을 멸망시키는 저주가 된다. 집안의 새로운 식구를 원하는 기원과 집안의 멸망을 불러오는 저주가 하나의 언술 안에 담기는 것이다.

부모의 기녀치성과 함께 곤잘 등장하는 관용구가 있다. 바로 ‘여우같은’ 혹은 ‘매구같은’ 딸 하나 낳게 해달라는 부모의 소원 발화이다. 〈여우누이〉의 ‘담화’에서 여우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매구’로 불리는 것은 ‘여우누이의 괴물적 속성을 처음부터 환기하는 장치’²⁵⁾로 볼 수 있다. 화자들은 ‘여

22) 강진옥(1993), 앞의 논문.

23) 박대복·유형동(2009), 앞의 논문; 최원오, 「동아시아 서사문학에서의 “여우()”와 그 “인간-동물” 문화적 특징」, 『국문학연구』 31, 국문학회, 2015 등.

24) 카이저(2011), 앞의 책, 71쪽.

25) 김준희, 「〈여우누이〉 설화 속 ‘여우누이’의 복합적 형상화 연구」, 『구비문학연구』 46, 한국구비문학회, 2017, 180쪽.

우 같은 딸 하나 낳게 해 달라'라는 소원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하며 불길한 발언인지 이미 인지하는 상태에서 구연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화자들이 이미 '여우'를 '딸'의 보조 관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설화 내에서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다. 적어도 부모의 입장에서 여우와 딸을 연결시킨 기원은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곱상한 외모'를 생각하여 '여우 같은' 딸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람이 아닌 여우라도 좋으니 '여우 같은' 딸을 원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어쨌든 (여우)딸이 출생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었다. 물론 설화 속 인물과 이야기판 속 화자와 청중의 인지가 어긋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딸에 대한 간절함이 자신들의 죽음을 초래하기에 문제적이다. 즉 기녀치성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될수록 앞날에 무지한 부모가 딸 낳기를 비는 장면은 '스토리'와 '담화' 모두의 차원에서 그로테스크한 미감을 더하게 된다.

옛날에 한 집에 아들만 난 모양이라. 그런데 하도 딸이 없으니까네 딸이 없으니까네 딸을 하나 원()을 했어. '여우라도 좋으니까 하나 낳아 봤으면 좋겠다.' 즉 엄마가 그런게 칠성당에 가가지고서는 공을 드리는데 뭐라고 드리놓고 하니까네,

“나 딸 자숙 한나 태와주게 해주라.”

“고 여우라도 좋으니까 하나 태와 주라.”

고 그러더니만은 참 태기가 있어서 애기를 떡 낳아 놓으니까네 딸을 낳았어. 어찌게 이빠게 생겼는지 이놈의 딸이 그래가지고서는 키와 놓으니 뭐 어느 사람 입 안 달치는 사람이 없고, 이빠서 그런데 부잣집인데 그 집도 부잣집인데 저 딱 허룻저녁이는 자고나니까네 딸이 한 마리 죽어뿌렸어. (밑줄은 인용자)²⁶⁾

26) <여우 동생>, 정금선(여, 71) 1984. 3. 30. 구연, 『한국구비문학대계』 6-4, 595~596쪽.

비단 ‘기녀치성’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여우가 인간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났다’ 등의 부연이 더해지면²⁷⁾, 처음부터 여우누이는 부모를 해치고자 출생하는 모순을 실현한다. 여우의 영혼이 부모를 직접 공격했다는 식의 복수도 가능할 터인데, 왜 하필 여우의 영혼은 태아에게 깃들어 인간의 육체-사실 이 육체 역시 인간과 여우를 오간다는 점에서 어떠한 육체인지 규정하기 어렵다-를 통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가?

이는 엄밀히 말하면 죽은 여우의 ‘환생’ 혹은 ‘부활’이기도 하다. 복수하려는 여우의 영혼이 깃든 여우누이는 잉태된 단계부터 삶과 죽음, 인간과 여우가 공존하는 그로테스크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스토리’ 내부에서 이 괴상한 잉태의 이유를 해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담화’ 층위로 옮겨 왔을 때 ‘잉태담’의 추가는 여우누이의 그로테스크적 속성을 부가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태아의 단계에서부터 하나의 육체에 인간 부모의 핏줄 그리고 부모에게 원한을 품은 여우의 영혼이 공존하는, 우스꽝스럽고도 불편한 상태가 형상화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출생한 여우누이는 처음 출생한 새 생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는 이미 죽었던 여우가 살아난 존재라는 점에서 “살아 있는 시체”인 ‘좀비’에 견주어볼 수 있다.²⁸⁾ 이 과정에서 여우누이는 삶과 죽음의 혼재, 인간과 여우의 혼재를 동시에 드러내는, 그로테스크한 존재로 세상에 나오게 된다. 이것을 ‘혼종성’, ‘혼재’ 등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여우누이에게서 발견되는 ‘뒤섞임’은 양립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섞여 불편한 정서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뒤섞임’에서 나아가 그로테스크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7) 〈원수 갚은 여우누이〉(김갑숙(여, 83) 2016. 1. 28. 구연, 『증보 한국구비문학대계』) 등의 각편에서 이러한 부연이 나타난다.

28) 김석, 「유령과 좀비로 본 그로테스크의 공간 두 죽음 사이」, 김종갑 외 저, 『그로테스크의 몸』, 쿠키(건국대학교 출판부), 2010, 66~69쪽.

2) 여우누이의 성장과 파괴

부모를 잡아먹고 오빠마저 먹겠다고 쫓아오는 여우누이는 일단 인간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러한 모습을 실제 동물 여우의 특성을 통해 이해하기도 곤란하다. ‘진짜’ 여우라면 사람의 영역에 들어와 딸로 태어나고 자신보다 큰 동물의 간을 쉽사리 빼 먹지 않을 것이다.²⁹⁾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부모 식인이 여우라고 해서 할 법한 행위도 아니다. 즉, 여우누이는 그 기원이 여우에 있다고 ‘말해지지만’ 실은 그 자체가 반인반수이면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여우누이는 이미 ‘구상’면에서 이질적인 것들이 한데 섞여 있으며 그것들이 ‘융합’되기는커녕 부조화의 상태로³⁰⁾ 존재한다. 이 부조화는 인간 세계와 여우누이의 충돌만을 증폭함으로써 그로테스크를 강화한다.

구체적 장면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여우누이가 괴물적 모습을 드러내는 대표적 장면은 바로 여우의 모습을 하고 밤중에 가족을 잔인하게 잡아먹는 부분이다. 그는 낮에는 예쁜 인간 딸, 밤에는 무섭고 공포스러운 포식자로 형상화된다.

즈그 오빠가 저녁으 딱 가서 말마구에 올라가 지키는데 밤중되니 즈그 여동생이 나오드니만은 딱 손에다 기름을 칠하고 나오드니만은 소 똥구멍으로 손을 쭉 집어 여 간을 쪽 빼 묵어부드라네.

() 막동이 이들이 보니까네(이들이 팔 형제 있었는데, 큰아들부터 막내아들까지 누가 소 간을 빼먹는지 지키고 보던 것임-인용자) 아 즈그 동생이 오드만 나오드니만은 그러거든. 그래,

“아버지 아버지 참 말하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동생이 나와서 그래 간을 빼 묵더라.”

29) 인간 소녀든 여우든 자신보다 체구가 큰 말과 소를 잡아먹거나 간을 빼 먹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준희(2021), 앞의 논문, 63쪽.)

30) 톱슨(1986), 앞의 책, 16쪽·28쪽.

이러커저든. 즈그 아버지가,

“예라 이놈의 자숙 어디 우리 딸이 그런 짓을 해야.”

또 응 막 난리거든. ‘예이 바른대로 갈치쥬도 날 뒤라카니 나는 내대로 가버린
다’고 (막둥이 아들이-인용자) 도망을 해부렸어. 도망을 가뿌리고 이집이는 마
쫄딱 다 죽여뿌렸네. 인자 그 가시나가 즉 아버지, 즉 어매, 그 머슴살이 꺼정
말이고 소고 돼지고 다 잡아 묵고 저 혼자 오목허니 들어 앉아가 있어. (밑줄은
인용자)³¹⁾

그런데 부모는 이 광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빠들의 보고를 믿지 않
는다. 여우누이가 사람에서 여우로 변신하여 소를 잡아먹었다라도 부모 앞
에서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을 터이고, 그 때문에 부모는 오빠들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부모가 아들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은 곧 귀하게 얻은
막내딸이 그런 행동을 할 리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우누이
의 포식은 “낮익고 든든했던 어떤 것이 갑자기 이상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그로테스크³²⁾를 구현하고 있다.

여우누이에게는 가축에 대한 포식, 부모에 대한 식인 등의 행위가 전혀
기대되지 않았을 터이고, 따라서 여우누이의 행위는 이야기판과 오빠에게
공포와 충격을 준다.³³⁾ 그런데 여기서 부모는 오빠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데, 이는 아무리 부모가 딸을 편애한다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
태이다. 아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목격담을 완전히 외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리 없는’ 막내딸이 집안의 소중한 가축을 잔인하게 살해하
고, 부모가 이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모의 판단 기

31) 〈여우 동생〉, 정금선(여, 71) 1984. 3. 30. 구연, 『한국구비문학대계』 6-4, 595~596쪽.

32) 톰슨(1986), 위의 책, 82쪽. 톰슨은 이를 그로테스크의 ‘소외’ 효과로 설명하였다. 이는
“따로따로 놓아두었을 때에는 아무런 호기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할 뿐 아니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잡다한 것들을 한데 섞어놓는” 뒤얽힘과 관련이 있다. (톰슨(1986),
위의 책, 같은 곳.)

33) 김준희(2021), 앞의 논문, 98쪽.

준은 전도된다. 이를 부모의 어리석음을 부각하기 위한 설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낯섬과 혼란은 섬뜩함과 동시에 어리석은 대상에 대한 조롱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부모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이미 살아 있는 인간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아들이 모두 떠난 뒤 딸인 여우누이에게 잡아먹힌다는 점에서, 여우누이에게 몰두하는 부모는 인간으로서의 판단력을 상실한 채 이미 죽어 있는 상태나 다름없다. 이 대목 역시 인물들의 판단 기준이 전도되어 있는 상황에서 살아 있는 부모가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여우누이만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그로테스크한 장면을 연출한다. 부모의 일방적 편애만으로는 그로테스크를 지적하기 어렵지만, 부모가 아들들의 생생한 목격담을 무시하고 마침내는 딸에게 식인당한다는 전개에서 그로테스크를 읽을 수 있다.

여우누이가 잔인하게 가축을 살해하고 그 내장을 빼 먹는 행위 역시 외양과 행위의 충돌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했듯 이는 현실성이 없는 사건이지만³⁴⁾ 이야기판에서는 ‘간 빼 먹는 여우’의 이미지를 강화하며 전승력을 갖는 대목이다. 그로테스크가 신체적인 것이며 ‘육체 및 육체적인 무절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그로테스크 논의를 참조하면³⁵⁾ 체격의 차이를 전도하는 여우누이의 포식, 가축도 모자라 부모까지 잡아먹는 행위 역시 그로테스크한 장면을 연출한다. 여우누이의 무절제한 포식은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함도 아니다. 여우누이가 부모까지 잡아먹는 것이 그의 악함을 극단

34) 김준희(2021), 앞의 논문, 63쪽.

35) 톰슨(1986), 앞의 책, 77쪽. 본고에서 참조한 한국어 역사에는 ‘절제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말로 ‘부절제가 쓰였으나 맥락을 고려할 때 ‘무절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카니발’은 이러한 육체적 무절제가 그야말로 ‘분출’하는 행사인 바, 바흐친은 이 카니발에서 발생하는 그로테스크와 생명력에 주목하였다. 바흐친에게 있어 카니발의 난폭성, 광포한 웃음은 민중의 힘, 생성의 표출을 의미하였다. 최진석, 앞의 책, 364쪽.

적으로 강조하는 설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더라도 그 ‘과장된 패륜’ 또한 그로테스크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 극단적 악함이 육체적 측면으로 형상화된다는 점 역시 그로테스크의 특성에 부합한다.

여우누이의 가축 포식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악행’이지만 인간 세계에서 추구할 목적이 없는 여우누이의 입장에서는 존재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여우누이는 기존 질서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세계에 무차별적 공격을 행하며, 부모와 여러 아들들로 구성된 안정적 가정을 ‘흔적도 없이’ 소멸시킨다. 그런데 이는 대단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여우누이로서는 그저 본능적인 식욕을 채우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를 ‘악행’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여우누이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더욱 요원해질 뿐이다. 여우누이의 부모 식인 역시 ‘인간중심적’ 시각에서는 ‘패륜’이 분명하다. 그러나 집안의 가축을 다 먹어치우고 오빠들도 다 쫓아낸 여우누이의 입장에서는 남은 ‘식량’이 부모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포식을 통해 드러나는 여우누이의 그로테스크는 이 캐릭터의 ‘무지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무지향성’은 특히 그의 ‘무절제한 욕구’에서 포착된다. 사실 여우누이가 ‘방향성 없는 욕구’를 보이는 것은 가축 포식에서뿐만이 아니다. 여우가 사람에게 원한을 갚고자 잉태된다는 부연이 없다면, 여우가 이 집의 딸로 태어난 이유는 (‘스토리’상) ‘기녀치성에 대한 징벌’ 이외에 뚜렷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집안에 여우누이를 점지해 준 존재가 등장할 경우 그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여우누이 자체는 목적이 없이 이 집의 딸로 태어나 끝없는 식욕과 파괴욕만을 채워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우누이의 그로테스크적 면모는 화자들의 ‘담화’ 층위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이해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준다. 앞서 언급하였듯 〈여우누이〉의 화자와 청중은 이미 여우누이가 ‘매구’같은 존재임을 알면서도 그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끊임없이 그를 주인공으로 호명한다. 이러한

양상에 대하여 화자와 청중이 파괴 자체로부터의 쾌감이나 공포 자체가 주는 ‘공포의 미’를 즐기면서도 퇴치에서 오는 쾌감을 향유한다고 접근³⁶⁾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양상을 권선징악적 교훈 혹은 ‘딸 낳기를 빌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통해 이해한다면, 부모와 오빠들이 무력하게 죽거나(부모) 물러나고(오빠들) 포식 장면이 적극 부연되는 이유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포의 미’는 결국 공포의 ‘해소’를 전제로 하며³⁷⁾, 앞서 설명하였듯 파괴가 주는 흥미는 결국 퇴치로 대체되기에 처음부터 ‘허용된’ 범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때 이 ‘제한’을 그로테스크를 통해 이해하면 화자들의 ‘윤리적 태도’ 자체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그로테스크의 시각에서 설명하면, 어울리지 않는 정서의 공존 자체를 여우누이 같은 그로테스크한 캐릭터의 필연적인 효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그로테스크한 흥미와 쾌감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거나, 고차원적 미의식을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경계적’³⁸⁾이기도 하다. 앞으로 나

36) 김준희(2021), 앞의 논문, 101~103쪽.

37) 임재해(1992), 앞의 책; 임재해(1998), 앞의 논문.

38) ‘경계성’ 개념은 빅터 터너(V. Turner)가 제안한 ‘리미널리티’에 기반하되, ‘혼란한 중간 상태’ 자체를 부각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리미널(liminal)은 문지방(threshold)을 뜻하는 라틴어 ‘limen’에서 유래하였다. 터너는 ‘리미널’의 영역을 “일종의 애매성의 시기와 영역, 즉 어떤 결과로 생긴 사회적 지위나 문화적 상태의 속성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일종의 사회적 중간상태(social limbo)”로 설명하였다. (이상 빅터 터너, 『빅터 터너의 제의에서 연극으로: 놀이의 인간적 진지성』, 김익두 역, 민속원, 2014, 42~43쪽.) 그러나 이 개념은 기존 구조에의 포섭을 전제하고 일회성을 지닌다. 터너에 의하면, 리미널리티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행하는 돌파구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터너(2014), 위의 책, 77쪽.) 그런데 ‘트릭스터’의 경계성을 고찰한 나수호의 논의를 참조하면, 터너의 이해를 참조하되 중간 지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경계성에 주목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거나 기존 구조로 복귀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범주나 체계에 속하면서도” “범주나 체계를 초월”하는 특성으로 경계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나수호,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 방학중·정만서·김선달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31

아가지도[완전한 파괴], 뒤로도[엄정한 징치] 물러나지 않는 경계 지대에서 발생하는 정서이기 때문이다. 물론 화자들이 파괴적 쾌감을 즐기다 이내 징치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복수()의 쾌감’을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각편의 ‘담화’에서 여우누이의 행위에 대한 부연만 남는다면, 즉 화자와 청중이 더 이상 ‘딸 낳기를 빌면 안 된다’라는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고 부조화 자체에 대한 흥미만 지니게 될 때, 이 흥미를 쾌감의 공존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때 그로테스크에 기인한 향유를 인정한다면 부조화와 충돌 자체를 인정하면서 향유의 경계성에 대하여 유연한 접근이 가능해진다.

여우누이와 인간 세계의 불화는 이처럼 ‘풀릴 길 없는 뒤얽힘’³⁹⁾이며 행위 동기에 대한 궁구를 무의미하게 한다. 이 불화는 가족 내부와 외부의 불화인가? 아들이 이미 여럿 있는데 딸을 바란 가족 내에서 발생한 불화인가? 여우누이가 인간만으로 구성된 가족 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파탄의 원인 역시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카이저가 지적하였듯, 그로테스크는 “미지의 무엇을 구체화한 것”이며 “우리의 세계로 침입하는 세력이 무엇인지는 파악이나 설명이 불가능하”⁴⁰⁾기 때문이다.

그리고 ‘갈등 해결의 불가능성’과 관련된 〈여우누이〉의 그로테스크는 여우누이의 퇴치를 통해 극대화된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여우누이의 퇴치와 설화의 결말에 나타난 그로테스크를 살피며, 후반부의 그로테스크가 지니는 의미를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쪽.) 전자 즉 터너의 리미널리티 개념은 바흐친이 주목한 ‘생성력의 그로테스크’ 즉 기존 질서의 권위를 격하시키면서 재생을 예고할 수 있는 그로테스크와 잘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반면 〈여우누이〉의 그로테스크가 보여주는 경계성은 후자의 경계성으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39) 톰슨(1986), 앞의 책, 84~85쪽.

40) 카이저(2011), 앞의 책, 291쪽.

3. 여우누이의 퇴치 : ‘미해결’의 그로테스크⁴¹⁾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여우누이에 대한 퇴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오빠들은 여우누이의 가축 포식을 고발했다가 도리어 부모에게 쫓겨나가 나 스스로 위협을 느끼고 집을 떠나는데, 그 중 한 명이 집에 다시 돌아온다. 여우누이가 퇴치되는 것은 오빠가 가져온 도구 혹은 오빠의 조력자에 의해서이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오빠가 마주한 것은 누이동생의 무시무시한 식인 현상이었다. 여우누이는 부모마저 잡아먹었고, 각편에 따라서는 이웃 사람들까지 잡아먹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냥 집집마다 보면 동네가 전부 그냥 축대뿐이야. 집은 다 썩러지게 되구,
그 썩러지게 된 텔 가만이 가는데,

“아이구 우리 오빠 오네.”

하더니 아주 반가이 받아들인단 말이야. 누이동생이. 그래 딱 나귀를 매 놓구
들어가서 밥이라구 허구 국을 끓여 왔는데 국을 한 숟갈 뜨구 두 숟갈째 뜨니까
손가락이 있드라 이 말이야. 손가락이 있어. ‘나 여기 있다간 안 되겠다. 나도
없어진다.’⁴²⁾

위 인용문을 보면, 여우누이가 내 온 음식을 마주하고서야 오빠는 누이동생이 ‘식인 괴물’이었음을 깨닫는다. 여우누이가 내 온 음식에 인체의 과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도’ 없어지겠다는 오빠의 공포에서 이미 부모가 희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1) 오빠의 조력자, 〈여우누이〉의 결말은 각편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구체적 양상은 김준희(2021), 앞의 논문, 40~44쪽에 정리되어 있다. 오빠의 조력자가 이인이나 아내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 결말에서 오빠가 이계로 가는 경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2) 〈여우 누이동생과 두 오빠〉, 김병룡(남, 67) 1979. 5. 27. 구연, 『한국구비문학대계』 1-1, 503쪽.

“아이구 저저 하나 마자 먹어야 할텐데 가네.”

쫓아 온단 이 말이야. 당할 수가 없어 어떻게 빨른지.

() “그래도 허, 네가 그만한 재주가 있으니까 살리구 하지. 그러나 안 될 걸. 내가 먹어야 할걸.”

해지구 또 나온단 말이야.

() 인전 내가(오빠가-인용자) 영 마지막 죽게 되니, 정자냥구가 하나가 있어. 정자나무, 정자나무루다, 그냥 기어 올라와버렸어.

“네가 그만한 재주나 있으니까 네가 살겠다고 하지. 안될걸.”⁴³⁾

여우누이는 오빠가 도망치려 하자 그를 뒤쫓는다. 이 장면은 앞선 가축 포식과 더불어 화자의 관심을 끄는 ‘양대 인기 장면’이기도 하다. 따라서 화자에 따라 ‘오빠 한 입(때) 말 한 입(때)’(오빠 한 입 먹고 말 한 입 먹고 싶다), ‘네가 살겠다고 하지만 안 될걸’ 등의 공포스러운 말을 주문처럼 반복함으로써 여우누이를 한층 실감나게 ‘창조’해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 마 붉은 빙이로 확 던지뿌이까네(여우누이가 달려들자 오빠가 말을 잡아 타고 달아나며 병을 던진 것임-인용자) 마 불이 마 마 마 확 나가지고 마, 따라올라고 낭창낭창 하디마는 마 불이 불으이까 문 와가지고,

“하이구, 오라비 한 때 말 한 떼데 인자 .”

오라비 한 때 말 한 때 인자 고래 물(먹을) 낀데 인자 지가 문 간다고,

“하이구, 오라배요, 같이 갑시더. 같이 갑시더.”⁴⁴⁾

앞서 부모의 ‘여우 같은 딸 하나만 낳게 해 달라’라는 말이 기원과 저주가 공존하는 그로테스크한 발화임을 지적한 바 있다. 위 인용문에서 여우

43) 〈여우 누이동생과 두 오빠〉, 김병룡(남, 67) 1979. 5. 27. 구연, 『한국구비문학대계』 1-1, 503~504쪽.

44) 〈여우로 태어난 딸〉, 권예영(여, 54) 1984. 7. 25. 구연, 『한국구비문학대계』 8-12, 479쪽.

누이가 ‘오라비 한 때 말 한 때’를 외치는 것 역시 먹을 수 없는 대상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을 먹겠다는 모순을 드러내면서 그로테스크의 ‘부조화’적 특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아울러 이 발화 역시 오빠의 육체에 대한 공격을 포함함으로써, 여우누이가 내 온 인육 음식과 연결되어 육체적 그로테스크의 장면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

여우누이가 오빠에 대한 추격을 포기하거나 죽음을 맞는 대목, ‘퇴치’ 역시 주변을 모두 폐허로 만들고 있기에 문제적이다. 여우누이는 더 이상 오빠를 추격하지 않거나 그 육체가 파괴되면서 오빠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여우누이로부터 벗어난 오빠가 온전히 이전의 터전을 회복하기는 어렵다. 오빠가 조력자 아내 등을 따라 ‘이계’로 떠나는 결말이 덧붙는 경우라도, 이전의 가족과 현실 세계를 고려하면 이는 황폐화된 현실과의 이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오빠가 이계로 가지 않는 각편에서도 여우누이가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 놓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즉 이 설화의 결말은 오빠 개인의 구명과 결혼 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행복한 결말’일 수 있지만 예전의 ‘완전한 가족’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미해결의 상태를 남긴다.

그리고 오빠의 조력자가 인간과 동물을 오가는 변신 능력의 소유자로 등장할 경우, 여우누이에게서 가장 문제시되었던 ‘수성(동물성)’은 제압되지 않은 채 인간이 다시 수성에 의존하는 결말이 나타난다.⁴⁵⁾ 물론 여기서 조력자의 수성은 인간 오빠를 ‘위해’ 쓰이는 수성이지만, 조력자가 (간접적으로 암시되든 직접적으로 나타나든) 등장하지 않았을 경우 해결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여우누이에 의해 가족이 파괴되고 생명이

45) 김준희(2021), 앞의 논문, 192쪽에서 여우누이로부터의 ‘피해’가 인간 오빠의 능력만으로 극복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설화의 ‘담화’는 인간과 이질적 존재를 호출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결말의 양상 자체나 인간인 오빠가 (인간 입장에서의) 외부성, ‘비인간’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은 이미 해당 논문에서 자세히 논의되었기에 본고에서는 그로테스크 논의에 필요한 선에서 해당 논문을 참조하고자 한다.

위협받았던, 인간의 ‘나약함’이 잔존하는 채로 설화가 종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해결성’, 소위 ‘찜찜한 결말’은 실전 판소리의 그로테스크적 성향을 참조했을 때 한층 이해하기 용이하다. 서유석은 전승 판소리의 그로테스크가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격하하고 대안적 사회 질서를 모색하는 의미를 지닌 반면, 실전 판소리의 그로테스크는 재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갈등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남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⁴⁶⁾

만일 〈여우누이〉가 여타의 권선징악담처럼 뚜렷이 선한 인물, 악인의 대척점에서 그를 훈계하거나 퇴치하는 영웅 등을 모범적 인물로 내세웠다면 퇴치와 결말에서 발생하는 그로테스크의 효과는 미미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우누이〉에는 파괴 장면에 대한 묘사가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복원이나 재생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딸이 부모를 잡아먹은 여우누이의 집, 여우누이가 오빠를 추격하고 오빠가 여우누이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초토화된 주변 공간 등은 “죽음의 저주와 공포가 가득한 공간으로 변”하여 “기존의 것과 화해가 불가능한 장소”가 된 〈변장쇠가〉 속 웅녀의 집⁴⁷⁾과 다른 미감을 생산하지 않는 것이다.

4. 나오며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그로테스크’ 개념을 통해 〈여우누이〉 설화에 접근하여, 설화 내에서 그로테스크가 나타나는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로테스크 미학의 차원에서 이 설화가 보여주는 불확정성, 경계성, 충돌 등을 조명하였는데, 특정 장면의 시각적 그로테스크함뿐만 아니라 여우누이라는 존재, 그리고 설화 자체에서 발생하는 그로테스크를 탐색하였다.

46) 서유석(2011), 앞의 논문.

47) 서유석(2011), 위의 논문, 316쪽.

그로테스크의 미감이 주요 인물의 형상화, 이야기관의 ‘담화’에 두루 나타나는 양상을 확인하였고, 여우누이가 보여주는 불확정성, 혼종성, 불가해성, 미해결 등이 그로테스크의 효과가 될 수 있음을 살폈다. 아울러 그로테스크가 반드시 재생을 담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미해결’ 자체를 수용할 수 있게 한다. 여우누이에 대한 ‘완전하고 확실한 퇴치’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로테스크를 통한 〈여우누이〉에의 접근은, 남매관계의 문제를 육체적 차원에서 제기하는 〈달래나 보지〉 설화에의 새로운 접근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로테스크를 보여주는 판소리 작품 등과 설화의 본격적 비교 연구가 시도된다면, 구비문학 작품의 미학적 특질에 대한 연구 역시 확장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한국구비문학대계』 전 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 『증보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gubi.aks.ac.kr/web/Default.asp>」, 2021. 11. 1. 접속.
- 강진옥, 「변신설화에 나타난 세계인식양상(1)-여우의 둔갑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논총』, 다국 이수봉 선생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88, 611~630쪽.
- 강진옥, 「변신설화에서의 ‘정체확인’과 그 의미」, 『진단학보』 73, 진단학회, 1992, 165~185쪽.
- 강진옥, 「여우누이설화에 나타난 남매대결의 의미」, 『구조와 분석』 2, 창, 1993, 227~260쪽.
- 강진옥, 「변신설화에 나타난 ‘여우’의 형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9, 한국고전문학회, 1994, 5~45쪽.
- 김나영, 「비틀어진 인물 형상을 통한 인식의 전환과 변신의 의미 확장 가능성 -〈외쪽이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131~164쪽.
- 김용선, 「〈반쪽이〉 설화 속 ‘신랑 승인’의 양상 재고」, 『동아시아고대학』 56, 동아시아고대학회, 2019, 287~312쪽.
- 김용선, 「구전설화 속 ‘방노담()’의 양상과 의미 : 분노서사에 투영된 소피()행위의 아브젝시옹과 그로테스크」, 『한국문학연구』 6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1, 145~182쪽.
- 김용선, 「〈바보사위〉 설화 속 ‘지적장애’의 징후 - 사위의 암기강박과 처가의 이해와 수용 -」, 『한국문학과 예술』 38,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1, 37~69쪽.
- 김종갑 외 저, 『그로테스크의 몸』, 쿠북(건국대학교 출판부), 2010, 1~272쪽.
- 김준희, 「〈여우누이〉 설화 속 ‘여우누이’의 복합적 형상화 연구」, 『구비문학연구』 46, 한국구비문학학회, 2017, 155~188쪽.
- 김준희, 「남매관계 설화의 형상화 양상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255쪽.
- 나수호,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 방학중·정만서·김선달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259쪽.

- 박대복·유형동, 「〈여우누이〉에 나타난 요괴의 성격과 퇴치의 양상」, 『어문학』 106, 한국어문학회, 2009, 149~177쪽.
- 박윤주, 「구미호()로 상징된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의 경계와 거부」, 『겨레어문학』 61, 겨레어문학회, 2018, 5~49쪽.
- 서유석, 「〈변강쇠가〉에 나타난 의 과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100쪽.
- 서유석, 「〈변강쇠가〉에 나타난 기괴적 이미지와 그 사회적 함의」, 『판소리연구』 16, 판소리학회, 2003, 29~59쪽.
- 서유석, 「실진 판소리의 그로테스크(Grotesque)적 성향과 그 미학」,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291~327쪽.
- 심우장, 「구비문학의 현재적 의의 찾기-〈슈렉〉과 〈바리공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59, 어문연구학회, 2009, 137~160쪽.
- 심우장, 「〈바리공주〉에 나타난 송고의 미학」, 『인문논총』 67,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149~186쪽.
- 이명현, 「구미호 이야기의 확장과 억압된 타자의 귀환—〈구미호 여우누이던〉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55, 국제어문학회, 2012, 11~41쪽.
- 이승민, 「한국 구비설화 속 괴물의 양태와 콘텐츠화 전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139쪽.
- 임재해, 『민족설화의 논리와 의식』, 지식산업사, 1992, 1~421쪽.
- 임재해, 「설화의 상상력과 민족적 창조력」, 『한민족어문학』 33, 한민족어문학, 1998, 315~362쪽.
- 정윤명, 「한국 전래동화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특성 분석」,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116쪽.
- 정환국, 「19세기 문학의 ‘불편함’에 대하여 - 그로테스크한 경향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연구』 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253~287쪽.
- 최원오, 「동아시아 서사문학에서의 “여우()”와 그 “인간-동물” 문화적 특징」, 『국문학연구』 31, 국문학회, 2015, 255~280쪽.
- 최진석, 『민중과 그로테스크의 문화정치학 : 미하일 바흐친과 생성의 사유』, 그 린비, 2017, 1~527쪽.
- H. 포터 애벗, 우찬체 외 공역, 『서사학 강의: 이야기의 모든 것』, 문학과지성사, 2014, 1~464쪽.
- 미하일 바흐친, 이덕형·최건영 공역, 『프랑스어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

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2001, 1~795쪽.

Philip Thomson(필립 톰슨), 김영무 역, 『그로테스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1~101쪽.

S. 채트먼,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1~323쪽.

빅터 터너, 김익두 역, 『빅터 터너의 제의에서 연극으로: 놀이의 인간적 진지성』, 민속원, 2014, 1~248쪽.

볼프강 카이저, 이지혜 역,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아모르문디, 2011, 1~304쪽.

ABSTRACT

A Study on the Grotesque Features Represented in the 'Fox Sister' Folktale

Kim, Jun-he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convenience” and “uncertainty” of the Fox Sister folktale through the concept of “the grotesque.” Beyond the visual grotesque of a specific scene, I tried to examine the grotesque in the mere existence of the fox sister and the grotesque that occurs in the tale itself. First, the parents’ wish for a daughter makes things coexist that cannot coexist, given that it is already a wish that defies the society in the story and the “common sense” of the transmitters. The parents’ wish for a daughter eventually becomes a curse that ruins the family, resulting in a conflict between the wish and the curse, as conveyed in the discourse.

In addition, as the fox sister is an unnatural being, a hybrid of two heterogeneous species, she is a grotesque being that amplifies collisions with the human world in a state of incongruity rather than converging them, which leads to disharmony. The fox sister’s livestock predation embodies a grotesque in which familiar targets cause confusion. Distrustful of their grown-up sons, the parents also reveal their confusion between uncanniness and familiarity, and the fox sister’s brutal predation also reveals the clash of appearance and behavior and the grotesque of physical immoderation. The fox sister’s grotesque status reflects the character’s lack of specific aims. These grotesque interests and pleasures are related to “liminality” in that they do not pursue any value or high-level aesthetic consciousness.

Furthermore, in the scene where the fox sister chases after her brother and is eliminated, the contradictory utterance of eating an inedible object (a person who is called “brother”) is repeated, and the grotesque of disharmony appears. Even if the fox sister is killed, the unresolved state

remains in that the complete family cannot be recovered, which shows the “unresolved” in the grotesque.

Key Words

Fox sister, Grotesque, Collision, Uncanniness, Disharmony, Unresolved

논문투고일 : 2022.04.12.

심사완료일 : 2022.04.29.

게재확정일 : 2022.05.02.